

산사가 되어야 할 교회

소위 내로라하는 우리나라 대형교회의 외관을 보면 참으로 웅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앞에서면 쉽게 압도당하고 움츠러들기 십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크기는 둘째 치고 내부의 화려함이란 웬만한 5성급 호텔도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인들 또한 귀티가 납니다. 주일마다 주차장은 항상 비좁기 일쑤이고 그도 인근전체의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로 북적대기 일쑤입니다. 단상에 선 목사님은 보이지도 않고 다만 대형화면을 통해 얼굴모습을 대할 뿐입니다. 초대형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소리와 귀에 들이는 말소리에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은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번호표를 받고 그것도 빨라야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맛 집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당연히 음식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산인해 속에서 암표를 구하기에 이곳저곳을 헤매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시리즈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체면불구하고 부리나케 매대 앞으로

뛰어가 줄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폭탄세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형교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비유컨대 말씀이 맛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음식집의 맛(맛집)과 말씀의 맛(교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로서 그 맛이 정말로 맛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맛 집의 진실을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꽤나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서 아마도 누구나가 익히 알고 있는 프로그램일 것이라 봅니다. 프로그램에서 맛 검증단(檢證團) 3사람은 음식을 설령탕으로 정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맛 집을 선별하여 그곳 설령탕의 진실을 파헤치게 됩니다.

한곳에서 검증단은 설령탕을 먹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니다. 왜냐하면 설령탕을 우려내는 재료가 잡빠 그것도 수입산(輸入産)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입산은 국내산과는 달리 특유의 누린 냄새가 나고 맛 또한 진한 것이 아니라 멀건 맛이 나기 일쑤입니다. 물론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감출 수 있는 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증단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법은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증단 한 사람은 아마도 커피 프리머(Non-Dairy Creamers)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져두었습니다.

또 한곳에서 검증단은 마찬가지로의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곳은 한우로 국물을 우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설령탕에 들어가는 고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도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기는 앞선 집과 매한가지였습니다. 이후 검증단은 몇몇 설령탕집을 찾아가며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른 그곳에서 드디어 그들은 착한 맛 집을 찾게 됩니다.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검증단은 그 맛의 낱알을 파헤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이유는 신선한 재료와 주인의 정성에 있었습니다. 그날 판매할 양만 올곧게 정하고 새벽부터 장보기에 나서 이후에 몇 시간의 정성스런 손질을 거쳐 손님상에 설렁탕이 오르기까지 주인의 노고는 참으로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격도 착했습니다. 손님은 앞선 집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유별난 점은 손님들 대부분이 10년은 축에도 못하고 대개 20년 이상의 단골손님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증단은 한결같이 자극적이지 않고,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맛 그대로이며, 몸보신에도 이만한 설렁탕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였습니다. 끝으로 프로그램은 이 집을 착한 맛 집으로 인정한다는 명패를 붙이고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또 다른 맛 집으로서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이 경우 본래 맛 집과 다른 것은 검증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 또한 우리 모두의 생각(판단) 외에는 검증단이 없는 것이 아쉽지만 그도 우리 모두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삼고 한 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대개 설교가 맛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맛깔난 설교의 비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필자가 손꼽을 수 있는 것들은, 깊은 영성,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기도)를 통한 자기명확화(自己明確化)의 실현, 들음에서 나는 또 다른 들음으로서의 언설(言說), 세상의 지혜를 누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계도(啓導), 가르침으로서의 신앙

을 경계하고 있는 영성(靈性), 저마다의 경험적 지식과 분석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영력(靈力), 실천적 삶을 통한 신앙적 모범(模範)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앞선 검증단처럼 이 집(교회)의 맛을 감별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조미료가 섞였는지, 수입산인지, 커피 프리머가 들어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맛이 이전에 비하여 한결같은지 감별하기란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에 인이 박혀 길들여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줄곧 찾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착한 맛 집보다도 다른 맛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그냥 맛 집인지[하(下)], 착한 맛 집인지[상(上)], 아니면 착한 맛 집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착한 맛 집 이상의 또 다른 맛 집인지[최상(最上)]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여기 하나의 비유를 들어 방법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최상의 집을 분간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건으로 두어야 할 것은 이하 산사(山寺)를 교회로 비유하여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사(교회)에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날씨도 청명하고 쾌청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분주한 도시(죄로 가득 찬 이 세상)를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할 따름입니다. 그곳에 가는 목적은 분주한 도시 속에서 지친 상흔(죄)을 달래기(회개) 위함입니다. 곧 그곳 산사에서 새로운 기(죄 사함)를 받아 다시는 도시 속에서 상흔을

입지 않도록 지난 상흔을 치료받기 위함입니다.

산사에는 자동차(교만과 욕심)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명승지(참다운 신앙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산사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낡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는 우리 선대(先代)들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법당(예배당)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숲속을 지나야 합니다. 맑은 물소리와 새소리 때로는 청설모에 날다람쥐까지 우리를 반깁니다. 어찌나 귀엽고 청명한지 세속의 때가 완전히 씻겨 지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게으르지 않게 비포장 산길을 걷다보면 이내 법당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법당 처마의 풍경(風磬)소리(교회 종소리)는 그야말로 지난 주의 묵은 때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법당 앞의 사리탑(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두 손 모으고 잠시 합장(기도)을 합니다. 혼잣말이나 주위가 너무 조용한 까닭인지 마음속에는 마치 굉음처럼 메아리치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큰스님(목사님)의 염불소리(기도)가 들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음을 통해 우리 중생(교인)들을 깨우칠 수 있는 설법(설교)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큰스님의 염불소리는 끊이질 않습니다. 때로는 눕지 않고 좌선하면서[장좌불와(長坐不臥)], 때로는 벽을 보고 며칠을 자지 않고 수행하면서[면벽수행(面壁修行)] 중생의 깨달음(하나님 사랑의 재발견)을 위해 수행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넉넉히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을 뵈 때마다 우리는 항상 존경과 마음으로부터의 예를 표합니다. 큰스님의 가사(袈裟)는 마치 누더기를 걸친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씩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법당(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법당의 머리되신 예수님께서 두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저 눈물이 날 따름입니다. 땀 낮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흔을 씻기 위해 삼천 배(三千拜)의 예(속죄의 기도)로 정성을 다합니다. 등은 땀에 흥건히 젖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심한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두가 세상의 상흔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윽고 불전함(현금함)에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큰스님의 설법을 듣습니다. 질게 깔려 있는 낮은 목소리, 풀벌레 소리도 이때 잠시 숨을 멈춥니다. “산은 산이요(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물은 물이로다(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 또한 영원할 것이로다)”라는 설법은 장황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그렇지만 힘을 실어 염불(찬송)을 외웁니다. 산사에 고즈넉하게 메아리치는 염불은 세상의 모든 상흔을 도말(塗抹)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함장(성도의 교제)하고 모든 예불을 마칩니다.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모든 고통이 씻은 듯 사라집니다. 시원한 바람에 흘린 땀도 모두 오간데 없이 깨끗하게 됩니다.

바리에 밥을 담아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땀(죄 사함)을 흘려서 인지 맛이 꿀맛입니다. 음식물은 남김이 없어야 합니다. 큰스님의 명훈(明訓)입니다. 이내 우리는 산사를 깨끗하게 쓸고 닦고 소제(掃除)에 임합니다. 명승지이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더합니다. 자량은 숨기고 칭찬을 앞세웁니다. 오던 길을 다시 돌아 분주한 도시(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도시를 이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오던 길보다 발걸음이 가볍고 씩씩합니다. 오고가는 사람들을 만나며 아무 말 없이 그렇지만 목례와 함께 법당 앞에서 구한 염주(전도지) 하나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인사합니다.

오던 길과 가는 길은 조용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잔잔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로지 새와 물소리만 지저귀고 흘러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자연의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법당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은은하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뒤를 돌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합장에 임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 그 방법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최상의 집을 분간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건으로 두어야 할 것은 이하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가기까지 우리는 복잡한 도심을 뚫고 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짜증이 납니다. 차를 가지고 갈 요량이면 주차에 땀을 흥건히 쏟아야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에 임합니다. 반주에 맞춰 박수를 치고 책상을 치면서 그렇게 기쁨을 나눕니다.

장로님의 대표기도를 듣습니다. 우리는 중간 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장로님 기도에 부응합니다. 이내 설교를 듣습니다. 때로는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면서, 그렇게 전파되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지막하게, 어떨 때는 찌렁찌렁하게, 그렇지만 대개가

우렁칩니다. 설교에 우리의 가슴은 뭔가 모르게 들뜨게 됩니다. 설교 중간 중간에 마찬가지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설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30분 내외가 보통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병든 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증축과 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등등 매주 기도제목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기도는 때로는 있다가도 없고, 때로는 없다가도 있음이 보통입니다.

이내 예배를 파하면 낮익은 얼굴들과 지난 한 주를 이야기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성수에 뿌듯한 자긍심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무척 기뻐하심과 동시에 이번 한 주도 무사하게 뜻하지 않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어봅니다.

시끄럽고 소란하며 분주한 집은 최상의 맛 집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향하는 집은 최상의 맛 집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복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발걸음을 향하는 그 집은 최상의 맛 집이 아닙니다. 목청을 우렁차게 돋우고 있는 주방장이 있는 집은 역시나 최상의 맛 집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들뜬 마음이 용솟음치는 곳은 최상의 맛 집이 아닙니다.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잠시잠간의 편안함이 있는 집도 최상의 맛 집이 아닙니다. 오고가는 길에 성경찬송이 손에 들려져 있지 않다면 향하는 그곳 또한 최상의 맛 집이 아닙니다. 이곳저곳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목회자가 있다면 마찬가

지로 그곳은 최상의 맛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비록 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고는 하나, 맛 집[하(下)]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 어디엔가 조미료, 수입산, 커피 프리머가 버젓이 그렇지만 눈에 띄지 않게 용해(溶解)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01:17-23)